

은퇴포기한 노년, 64.1% '취업 희망'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고령인구 장래근로 희망비율 역대 최고 근로 희망 사유 59% "생활비 때문" 최다 가장 오래 근무 일자리 은퇴 연령 49.1세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약 65%가 장래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희망 사유를 보면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노년 은퇴를 포기하도록 내몰리는 모양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인구 1292만9000명 가운데 장래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62.0%로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62.4%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1년 만에 기록이 다시 경신했다. 은퇴를 한 이후에도 다시 일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은퇴 후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증가한 모습이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에 59.0%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보다도 0.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3.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취업을 희망한 남자가 75.6%로 여자(53.6%)보다 두 배

은 비율을 나타냈다. 근로 희망사유는 남자와 여자 모두 '생활비에 보탬'에 각각 56.7%, 62.0%로 가장 높았다.

취업상태별로 보면, 55~79세 중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무려 92.8%가 향후에도 일 자리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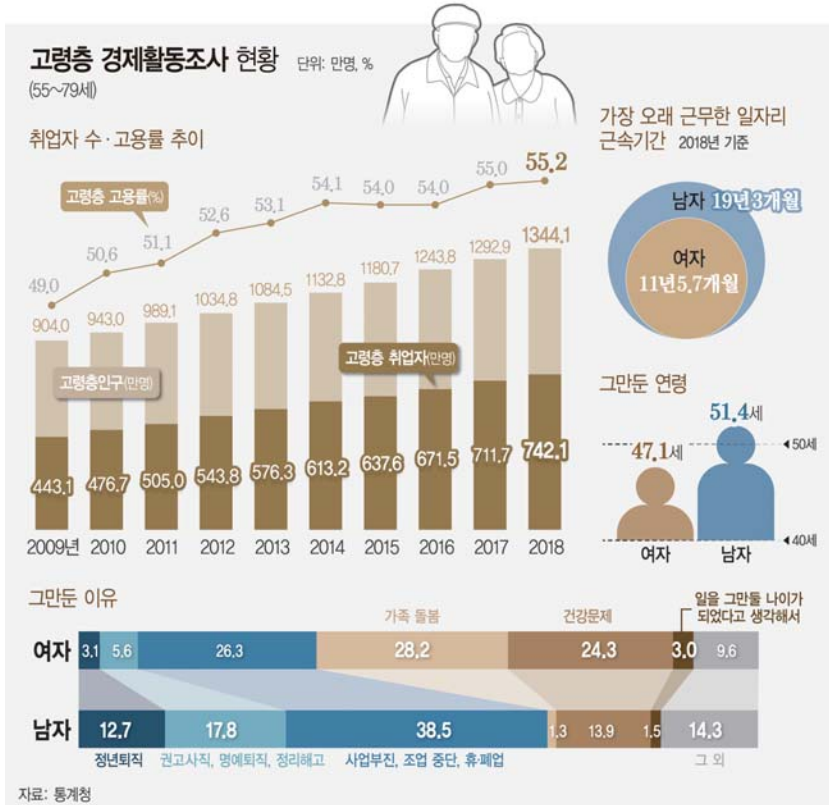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기록을 봐도 노년층의 취업시장 참여 욕구는 높아지는 추세다.

55~79세 인구 중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비율은 16.9%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취업경험자 비율은 63.9%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높아졌다.

또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비율은 17.0%로 전년 동월 대비 3.4%포인트가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자가 22.3%, 여자가 12.3%가 참여경험이 있었다.

일자리에 대한 고령층의 일자리 욕구는 점차 높아지지만,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은퇴 연령은 50세에 되지 않았다.

통계청이 55~64세 취업유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오



래 근무한 일자리에 대한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4.9개월에 그쳤다. 그나마 1년 전보다 1.4개월 증가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당시 평균 연령은 49.1세로 1년 전과 같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51.4세, 여자가 47.1세로 나타났다.

은퇴 사유를 보면 '사업부진'이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는 11.2% 수준이었다.

50세가 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54.4%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이 높아진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

55~79세 인구 중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6%(61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60~79세로 좁히면 64.9%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 10~25만원 미만 수령자 비중이 42.9%로 가장 높았고, 25~50만원 미만이 27.6%로 뒤를 이었다. 150만원 이상 수령자 비중은 9.7%로 나타났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7만원으로 전년 대비 5만원 증가했다.



기아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스포티지 더 볼드' 출시한다

기아자동차는 스포티지의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 '스포티지 더 볼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포티지 더 볼드는 스포티지보다 강한 모습의 외장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공간, 높은 효율

가득 등을 사용해 스포티지보다 강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 'R2.0 디젤' 모델에는 상위 차급에 주로 사용됐던 전륜 8단 자동변속기를 동급 최초로 장착해 최고의 주행성능을 확보했다. R2.0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180마

강인한 외장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공간으로 무장 동급 최초로 전륜 8단 자동변속기 장착해 주행성 확보

성과 연비를 갖춘 파워트레인, 더욱 편리해진 커넥티비티 서비스와 편의사양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스포티지 더 볼드는 앞부분에 라디에이터 그릴과 인테이크 그릴, 발광다이오드 헤드램프와 안

력이 최대토크 41.0kgm의 파워풀한 동력 성능을 자랑한다.

스포티지 더 볼드의 가격은 R2.0 디젤 2415~3038만원, 스마트스트림 D1.6 2366~2989만원, 누우 2.0 가솔린 2120~2743만원이다.

LH, 쪽방·옴막 등 비주택 거주자에 임대주택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쪽방·비닐하우스·옴막·컨테이너를 비롯한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사들이거나 빌려 수리·도배 작업 등을 거친 뒤 생계의료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집이다.

무주택 서민들은 최초 2년 계약 후 9차례 더 임대주택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들은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기간, 부양가족, 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내달 28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 이후 분부별로 매매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수출유망 중소기업' 23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이 지역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광주전남청은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수출유망 중소기업 23개사를 선정하고,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기업 선정은 42개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력, 재무·혁신성 등에 대한 현장평가와 '광주·전남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선정된 수출유망 중소기업은 향후 2년 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 20개 수출 지원기관에서 우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 우대 자금·보증, 무역금융 등 여신 지원 때도 급리와 수수료를 '최대 20%' 우대 받고 수출보험료 할인 '최대 20%', 해외마케팅 참여 등 총 78개 분야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광주전남청은 이날 선정된 23개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총 87개사를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

광주 첨단산단에 소재한 광케이

블·커넥터 제조업체(썬푸드텔)의 경우 수출액이 7만 달러 규모이던 지난 2014년에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지정된 이후, 중기벤처부 지원으로 해외마케팅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13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푸드텔은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또 다시 선정돼 지난해 보다 더 큰 수출 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김진형 중기벤처부 광주전남청장은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역량을 국가가 인정해 줌으로써 대외 신인도 향상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지역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흥 기자



하계 성수기 공항 이용객 483만명 예상

전년보다 9.5% 증가

전국 공항이 25일부터 19일간 하계 성수기에 들어간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 하계 성수기를 맞아 특별교통대책본부 편성·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올 하계 성수기 전국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국내선 368만9000여명(전년 일평균 대비 4.2% 증가),

국제선 114만9000여명(31.0% 증가)으로 총 483만2000여명(전년 대비 9.5% 증가)에 달할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

김포공항은 오는 27일, 제주공항은 28일, 김해공항은 내달 11일 출국장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하계 성수기 기간 공항을 찾는 여객은 셀프 체크인과 신분확인 생체인식시스템(김포공항·제주공항) 등 신속 자동화기기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